

영·한·중 문화소 번역전략 연구

- 문화적 거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리번켈빈(KFLT 박사과정)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에 있어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 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고, 적용된 번역 전략의 적합성을 탐구하고 더불어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의 이론적 모델을 제안,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는 특정 집단의 언어, 종교, 사회적 습관, 음악 및 예술을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민족 및 지역으로부터 색다른 문화가 형성되어 문화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번역의 가장 뚜렷한 기능은 이문화(異文化) 간의 교량(橋梁)이 되어 양문화 간, 나아가 다문화(多文化)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번역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문화의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문화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각 문화에 속한 사회조직, 관습, 종교, 언어, 정부, 경제, 예술 등 문화 부문이 다르므로 번역은 원천 문화(source culture)에 나타나는 요소를 도착 문화(target culture)의 요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은 수많은 문화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핏 보면 쉬운 활동으로 보이는 번역이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 심지어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이 된다는 점이다. Reiss & Vermeer(2013:4)에서 ‘번역 작업(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같이 유사한 표면 구조를 가진 언어들 사이에서도)은 언어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¹⁾’라고 지적하였다. 노드(2006:156)에 의하면 ‘..... (번역은) 등가 요건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느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전(經典) 번역에서 교조(教條)로 여긴 직역이나 축자번역,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 만연해 있어 번역자가 원문에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어떠한 번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가 난제이다. 어떨 때 보존 전략을 쓰면 좋을지, 어떨 때 대체 전략을 적용하면 좋을지, 어떨 때 과감하게 삭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답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번역자가 원천언어 및 도착 언어에 있는 문화적 맥락에 담긴 모든 종류의 문화적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 못 할 경우 부적절한 번역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문화적 거리 이론을 도입하여 영·한 및 영·중 문화소 번역의 양상을 분석하고, 문화소 번역의 이론적 의거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문학 번역은 다른 장르의 번역보다 원천 텍스트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도착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에는 나라의 고유한 문화소가 담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화소에는 어휘, 관용어 및 관용구, 속담 등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그 작품의 문화 및 특징이 독자 앞에 나타나게 된다. 원문 독자가

1) Nord의 영문 번역 참조 : Translational action (even between languages with similar surface structures like English, French and German) is impossible unless we understand the paradigms of linguacultures....

단순히 자신의 모국어로 쓰인 문학작품을 읽는 것에 비해, TL 독자가 SL에서 도착어로 번역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그러므로 번역가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 문화소가 담긴 어휘 및 표현을 도착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거리의 번역이론을 바탕으로 영·한 및 영·중 문학작품에서의 문화소를 분석한다. 영어는 대표적인 서양권 언어로 볼 수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는 동양권 언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서양-동양’의 이분법적인 분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영·한 및 영·중 문학 번역에서 번역가가 선택한 번역 전략과 실제 번역 결과물의 양상을 깊이 있게 밝힐 수가 없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는 유형적으로 다르고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짐으로 문학작품 번역에서 영·한 및 영·중 번역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번역 전략과 번역 양상을 보다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 거리 관점에서 제이디 스미스(Zadie Smith) 소설 『On Beauty(온 뷰티)』를 중심으로 영·한 및 영·중 문화소의 번역 전략 및 그 전략의 다양성과 이론의 적용 등을 대조 및 분석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1.2.1. 문화소에 관한 국내 연구

문화소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3년에 이근희가 시작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국내 문화소 연구를 살펴보면 이근희(2003)에서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cultural-bound)’의 정의 및 범주를 제시하였다.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제시는 국내 문화소 번역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이다현(2003)에서는 ‘문화요소적 어휘’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고유명사 번역에서 원천 텍스트가 의도한 의미 약화(弱化) 등을 분석하였다. 김효중(2004)에서는 ‘번역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면서 문화소 번역의 중요성, ‘문화소’ 개념, 소여성(所興性)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보면 문화소가 번역 분석에 다양하게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근희(2008)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관련 어휘’ 정의를 내렸고, 이승재(2012a)에서는 문화소와 속담 및 관용표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후 국내 문화소의 연구 동향은 문화소의 분류, 문화소 번역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조재범(2015)에서는 영화 『왕의 남자』를 연구대상으로 문화소, 문화적 배경 지식, 문화적 문법 등을 제시하였다. 김혜림 외(2016)에서는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문화용어를 정의하였다. 악신(2018)에서는 중국 문학 작품 『河神(하신)』을 중심으로 음역법, 직역법, 해석법, 축소법, 제한적 일반화법, 절대적 일반화법, 자국어화법, 의역법 등 8개의 문화소 번역 방법을 제시하였다. 李錦(2018)에서는 중국 관광안내서의 고유명사 한국어 번역을 연구하였다. 이석철(2021)의 연구에서는 문화소 적용 범주, 문화소 번역 충돌, 문학 번역에 적용된 문화소 분류 및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1.2.2. 문화소에 관한 국외 연구

문화소에 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Nida(1964)에서는 ‘cultural specialties’ 용어를 제시하였다. Nida가 제시한 ‘cultural specialties’는 본질적으로 문화소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같은 해 Kade(1964, Reiss(2000) 재인용)에서는 ‘realia(리얼리아)’ 용어를 제시하고 정의하였다. Vermeer(1983)에서는 ‘culturemes’라는 용어를 제시하였고 그 이후 ‘culturemes’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문화소의 본격적인 명칭이 되었다. Newmark(1988)에서는 ‘cultural categories’ 즉, 문화(소)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문화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용어의 명명(命名)도 다양하게 나왔다. 예를 들어 Aixelá(1996)에서는 ‘culture-specific

items(CSIs, 문화특정항목)’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그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Nord(1997a)에서는 ‘cultureme’ 및 ‘culture specificity’를 정의하였다. Pederson(2011)에서는 ECR(언어외적 문화지시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1.2.3. 문화소 번역 전략 국내 연구

문화소 관련 번역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근희(2005)에서는 문화소 번역방법을 고유명사, SL의 특정 문화, SL의 특정 사건, 관용어, 도량형 5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그 이후 김도훈(2006)에서는 단어 차원과 관용구 차원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현경(2014)에서는 아동문학의 유머와 문화소를 분석하기 위해 ST 보존, ST 본문 설명, TT 표현으로 대체, 풀어서 설명 또는 단순화, 생략 5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조재범(2015)에서는 보존, 대체, 생략 3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석철(2021)에서는 중·한 문학 번역에 적용한 보존, 대체, 삭제 3가지 범주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저민(2021)에서는 사회적 특수어군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연구하여 Aixelá(1996)와 Pederson(2011)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기반으로 보존(직역, 부분 보존), 대체(정보의 추가, 일반화, 문화적 대체, 상황적 대체), 생략 등 3가지의 문화소 번역 전략 범주를 제시하였다.

1.2.4. 문화소 번역 전략 국외 연구

문화소 관련 번역 전략에 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Vinay & Darbelnet(1958)에서는 영·불 번역에 있어서 문화 번역을 비롯한 ‘loan(차용)’, ‘calque(모사)’, ‘literal translation(직역)’, ‘transposition(치환)’, ‘modulation(변조)’, ‘equivalence(등가)’, ‘adaptation(번안)’ 7가지의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Nida(1964)에서는 ‘형태적 등가(formal equivalence)’ 및 ‘동태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제시, ‘natural translation(매끄러운 번역)’, ‘co-suitability(공동적합성)’, ‘onomatopoeic express(의성어 표현)’, ‘anachronism(시대착오)’, ‘footnotes(각주)’ 등 문화 번역에 관련한 번역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Köller(1979)에서는 ‘대응(Korrespondenz)’ 및 ‘등가(Äquivalenz)’ 전략을 제시하였다. Newmark(1988)에서는 12가지의 ‘translation procedures(번역 순차)’를 제시하였고 Baker(1992)에서는 비(非)등가표현의 8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Venuti(1995)에서는 Köller의 연구 바탕으로 ‘이국화(foreignizing)’ 및 ‘자국화(domestication)’ 2가지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으로 문화소의 번역 전략을 제시한 학자는 Javier Franco Aixelá이다. Aixelá(1996)에서는 문화특정항목 번역 전략을 14가지 제시하였다. 또한, Pederson(2011)에서는 언어외적 문화지시어(ECR)의 7가지 번역 전략(유지, 구체화, 직접번역, 일반화, 대체, 생략, 공식 등가)을 제시하였다.

1.2.5. 문화적 거리에 관한 국내 연구

문화적 거리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왕영균 외(2009)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원천 텍스트의 이해 정확도 오차(誤差)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유경(2012)에서는 여성어 번역에서 ‘문화 간극’ 및 ‘맥락 간극’ 개념을 설명하였다. 문화적 거리와 번역의 관계와 관련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승재(2012b)에서는 ‘문화 갭(cultural gap)’은 상이한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번역을 문화적 요소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다. 편기영(2017)에서는 문화 차이로 인한 고유명사의 비등가적 번역을 연구하였다. 그 이후 김재희(2018)에서는 ‘문화적인 거리가 멀수록 번역사의 개입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1.2.6. 문화적 거리에 관한 국외 연구

문화적 거리에 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Nida(1964)에서는 ‘cultural discrepancies’, ‘cultural diversity’, ‘cultural gap’ 등 용어를 제시하였고, 문화로 인한 격차, 문화의 다양성 또는 문화 간의 거리를 논의하였다. Reiss & Vermeer(1984)에서는 “‘(text) producer’ - ‘source-text recipient(s)’”과 “‘translator’ - ‘target-text recipient(s)’”의 정보 (information) 차이를 제시하였고 본격적으로 문화가 담긴 언어 정보로 문화적 거리를 설명하였다. Nord(1997a)에서는 ‘cultural distance(문화적 거리)’ 3가지 가능성 제시, 스키포스 (Skopos) 이론으로서의 ‘cultural distance’ 설명 및 예시를 설명하였다. Nord(1997b)에서는 발신자(sender)와 수신자(receiver) 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 문화 차이(cultural differences)로 인한 문화 갈등 및 의사소통 실패, ‘기록적 번역’ 및 ‘도구적 번역’ 등을 설명하였다. Nord(2005)에서는 ‘cultural gap’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를 분석 이론으로 삼아 문학작품의 번역 전략을 분석하고, 그에 적용되는 번역 전략의 적합성을 탐구함과 더불어 영·한 및 영·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의 이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번역자가 번역 작업에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선 이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2장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를 살피고 문화소의 정의와 분류 및 번역 전략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화적 거리로서의 번역 및 문화소 번역과 문화적 거리의 관계를 제시한다.

3장 문화소 분석 방법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번역대상과 분석 자료를 정하여 분석 기준과 내용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5년에 간행된 당대 영국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Zadie Smith)의 『On Beauty(온 뷰티)』 (한역본: 정희성 역, 중영본: 杨佩桦 聂清风 역) 장편 소설이다.

4장 문화소 번역 전략 문화적 거리 분석 부분에서는 연구대상을 생태문화소, 물질문화소, 제도문화소, 관습문화소, 관념문화소 및 언어문화소의 6가지 범주로 나누어 문화적 거리 이론과 원문 내의 문화소 설명의 조건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5장 문화적 거리와 문화소 부분에서는 문화적 거리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에서의 거래비용을 분석한다. 이석철(2021)의 번역에 대한 거래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번역자의 문화적 거리 판단과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을 도입하여 정보에 대한 수집, 전달, 처리 및 이해 비용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해비용은 독자와 번역자 2가지의 차원을 구분해서 분석한다. 또한, 번역에 있어서 SL과 TL 번역자의 거래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비용 범주에는 SL과 TL 번역자의 경우를 나누어서 분석한다.

마지막 6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본 연구의 연구의의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와 문화소의 정의

2.1.1. 문화의 정의

문화의 개념은 문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Larson(1984:431)은 문화를 ‘한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신념, 태도, 가치 및 규칙의 복합체’로 정의했으며, 번역자는 이러한 신념, 태도 가치 및 원어 청중의 규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신념, 태도, 가치 및 규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번역하는 것이다.

또한, Newmark에 의하면 문화는 ‘특정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동체 특유한 삶의 방식과 표현’이다(Newmark, 1988:94). Newmark의 문화 정의를 보면 몇 가지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각 언어에서 담긴 문화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은 언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집단이나 공동체의 모든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문화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특유한 삶의 방식과 표현을 가리킨다.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학의 맥락성’이 중요한 논의 부분이다. Hall(1976:91)에 의하면 언어에 따라 언어가 반영된 문화는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와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로 구분된다. 영어, 독일어의 경우 ‘고맥락 문화’에 속한 언어이며 메시지에 담긴 정보가 물리적 맥락에 있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반면,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저맥락 문화’에 속한 언어이고 텍스트 외에 담긴 정보가 훨씬 많으며 즉, 메시지에서 코드화된 비명시적 정보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번역자가 문학 번역을 수행할 때 언어의 문화 맥락성을 고려해야 하며, TT에 문화 맥락성에 맞게 적합한 번역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2.1.2. 문화소의 정의

문화소는 문화가 담긴 요소이다. 이는 문화의 작은 단위로도 볼 수 있고, 분해되거나 더 큰 단위의 문화로 통합될 수 있는 상징적 가치의 기호를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소를 통해서 문화적인 행동이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문화소는 ‘문화 정보를 포함하는 단위’이며, 그 내용은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문화 기호이다. Newmark(1981:7)에 따르면 ‘번역은 한 언어로 작성된 메시지, 진술을 동일한 메시지 또는 다른 언어로 된 진술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구성된 기술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문화소 번역은 언어적 표현 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문화적 맥락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문화소의 번역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단어나 표현이 문화소로 간주하여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화소를 보는 관점에 따라 문화소의 명칭과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르다. 문학 번역에서도 문화소에 관해서 리얼리아(realia), 문화 고유 항목 및 문화적으로 ‘문화관련(culture-bound) 어휘’와 같은 여러 명칭이 있다. 리얼리아라는 명칭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얼리아는 물질문화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리므로 번역학에서 리얼리아, 또는 문화적으로 얽매어 있고 문화에 대한 특정한 표현은 쉽게 정의될 수 없다. 그래서 문화소는 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의미하는 단어도 포함된다.

Pederson(2011:43)에서는 ECR(언어외적 문화지시어)를 제시하였다. Pederson(2020:77)에

의하면 ‘언어외적 문화지시어는 문화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시도되는 지시어로 정의되며, 이는 언어외적 실체나 과정을 가리킨다’고 ECR를 정의하였다.²⁾ 비록 Pederson(2011/2020)은 문학 번역이 아닌 자막번역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국내·외 문화소 연구를 살펴보면 ECR와 문화소를 일치한 것으로 보는 학자가 적지 않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 Pederson이 제시한 ECR는 문화소와 동일하게 본다.

2.2. 문화소의 분류

문화소의 분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다. 최초로 문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시도한 학자는 Nida였다. Nida(1964)에서는 물질, 사회, 종교, 언어, 미학 5가지 항목으로 문화 단어를 분류하였다. 이 문화소 분류는 번역 작업에 있는 문화소를 포괄적으로 포섭하여 이후 문화소의 분류 기준이 된 중요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Nida(1964)의 분류 기준과 달리 Newmark(1988)의 문화소 분류 방법은 생태학, 물질문화, 사회문화, 공동체 문화(조직, 풍속, 활동, 절차, 개념), 몸짓과 관습 등 5가지 큰 범주로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분류의 장점은 집단문화 분류가 매우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 문화소의 세부 분류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몸짓과 관습의 분류가 있어서 비언어적인 분류도 고려되었다는 흔적이 보인다.

Baker(1992)에 따르면 원천언어 단어는 대상 문화권에서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 신념, 사회적 관습 또는 일종의 음식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학자들이 제시한 문화소 분류를 검토한 결과, Nida(1964)와 Newmark(1988)의 분류는 매우 포괄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문화소 분류이다. 이 견해에 대해 이석철(2021:4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앞서... 고찰했던 문화 분류 기준(Nida와 Newmark의 문화소 분류)에 가장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석철(2021:40-42)에 제시된 생태, 물질, 제도, 관습, 관념, 언어 6가지의 문화소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분류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첫째, 이석철(2021)에 제시된 문화소 분류는 앞서 언급한 Nida(1964)와 Newmark(1988)의 기준의 장점을 추출해서 만든 문화소 분류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학 번역에 있어서 생태, 물질, 제도, 관습, 관념, 언어 6가지의 문화소 분류는 문학 번역에 나타난 문화소를 포섭할 수 있다.

2.3. 문화소와 번역 전략

2.3.1. 문화소의 번역 전략

본격적으로 문화소를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 전략을 제시한 학자는 Aixelá이다. Aixelá의 문화특정항목(CSI) 번역 모델은 ‘보존 전략(conversation strategies)’과 ‘대체 전략(substitution strategies)’으로 나누며, 이 두 가지 주요 전략에 각각 속한 하위 전략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ixelá, 1996:65-70).

2) Pederson(2020)은 Pederson(2011)의 한국어 번역본이다.

3) 조재범(2015:13) 참조. Gaosheng(2019:34)에서 ‘In general, ECRs refer to culture-loaded words. For example, proper names of places and people, expressions which contain religions,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and so on’라는 지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ECR와 문화소를 일치하게 본다.

1) 보존 전략

- (1) 반복(repetition):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문의 문화소를 유지한다.
- (2) 철자법 적응(orthographic adaptation): 전사 및 음역과 같다. 원문 참조는 대상 독자가 사용하는 것과 다른 언어의 문자로 표시된다.
- (3) 언어적 또는 비문화적 번역(linguistic translation, non-cultural translation): 번역자가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최대한 원천 텍스트와 유사한 어휘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하위 전략이다.
- (4) 텍스트 외의 주석(extra-textual gloss): 번역자가 추가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각주, 미주, 괄호 안 설명, 이탤릭체 등 방법을 사용한다.
- (5) 텍스트 내의 주석(intra-textual gloss): 텍스트 외부 주석과 비슷하지만, 독자의 주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텍스트 내에 추가 설명을 제공한다.

2) 대체 전략

- (1) 동의어(synonymy) : 번역자가 특정 문화소를 번역할 때 같은 어휘 반복을 피하고자 동의어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 (2) 제한된 보편화(limited universalization) : 원천 텍스트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에 낯선 경우가 발생하면 번역자가 독자에게 보다 더 친숙한 다른 문화소로 대체한다.
- (3) 절대적 보편화(absolute universalization) : 번역자가 더 잘 알려진 문화소를 찾지 못하고 외래어 역시 없애려고 하는 경우, 독자를 위해 보편적인 문화소를 택하는 번역 전략이다.
- (4) 귀화(naturalization) : 번역자가 목표 문화에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문화소를 가져오는 번역 전략이다.
- (5) 삭제(deletion) : 번역자가 문화소의 번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독자가 요구하는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문화소를 삭제 처리하는 번역 전략이다.
- (6) 자율적 창작(autonomous creation): 번역자는 독자가 원천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문화소를 번역하는 창작적인 번역 전략이다.

또한, 이석철(2021)에서 Aixelá(1996) 등의 번역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3가지의 분류(보존, 대체, 삭제)와 9개의 구체 전략을 나누었다.

1) 보존

- (1) 음역 : 원음, 한자음, 한자로 표기, 한자음 표기
- (2) 축자번역 :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 (3) 텍스트 외적 설명 : 각주, 내주 곁텍스트(서문, 옮긴이의 말, 후기)
- (4) 텍스트 내적 설명 : 텍스트 안에 부연 설명하는 경우

2) 대체

- (5) 동의어 : 한 문화소를 도착어의 여러 가지 동의어로 번역
- (6) 일반화(제한적, 절대적): 문화소를 도착어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
 - 제한적 일반화 : 출발어의 일부 정보를 남기는 경우
 - 절대적 일반화 : 전부 도착어 일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

- (7) 자국화 : 도착어의 문화소로 대체
- (8) 창작 :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쓰는 경우

3) 삭제

- (9) 출발어 문화소를 도착어에서 생략, 빠뜨리는 경우

자막 번역에 관한 Pederson의 ECR 번역 전략 분류는 문화소 번역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최근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Pederson(2011:43)에서는 ECR(언어외적 문화지시어)를 제시하였고, Pederson(2011:74-100)에서 ECR의 번역 전략과 세부 전략 분류를 제시하였다. 그 분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⁴⁾

ST 문화소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며 TL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철자가 약간 변경된다. 즉, 원천언어로 적힌 문화소를 전환 없이 그대로 TT로 옮기는 전략이다.

2) 구체화

TT의 문화소는 정보를 추가하여 ST 문화소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 (1) 추가 : TT에는 ST를 번역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 (2) 완성 : TT는 ST 약어의 상세한 번역이다.

3) 직접번역

의미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SL에서 TL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전략이다.

4) 일반화

- (1) 상위어 : 특정 항목을 참조하는 문화소를 상위어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 (2) 바꿔쓰기 : ST 문화소는 제거되지만, 의미 또는 관련 내포는 유지되고 TT에서 수정된다.

5) 대체

대체 전략은 ST 문화소를 제거하고 다른 문화소, 어휘나 표현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 (1) 문화 대체 : SC 또는 TC에 있는 다른 문화소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 (2) 상황에 맞는 완전히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6) 생략

ST 문화소가 TT에서 완전히 생략되는 전략이다.

7) 공식 등가

일반적인 용법, 행정적인 결정을 통해 TL에 있는 기성 번역으로 SC 문화소를 대체하는 전략이다.

본 연구는 Pederson(2011:76)과 이석철(2021:52-53)에서 제시된 문화소 번역 전략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번역 전략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Person(2011)의 한역본 『텔레비전 자막제작 규범』(2020)에서 'retention' 전략은 '보존'이라는 대목으로 번역되었다. 본 연구에서 Aixelá(1996) 및 이석철(2021)에서 제시된 번역 전략을 구분하여 'retention' 번역 전략을 '유지'로 번역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

분류	세부 전략
유지(retention)	SL 문화소는 형태적이나 통사적 전환 없이 그대로 TT로 옮기는 전략
구체화(specification)	1. 추가 : ST를 번역하기 위해 TT에 자세한 내용 추가 2. 완성 : ST 약어의 상세한 번역 3. 파라텍스트 : 역주, 내주, 결텍스트, 삽화 등 텍스트 외적설명을 비롯한 정보 첨가
직접번역 (direct translation)	1. 음차번역 : ST의 음가 중심으로 SL로 번역이나 표기. 주로 단어로 된 문화소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2. 모사 : 직역 또는 ‘단어 대 단어’ 방식으로 TT에 대체. 주로 단어로 된 문화소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3. 축자번역 :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주로 구나 문장으로 된 문화소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일반화(generalization)	1. 상위어 : 특정 항목인 경우, 문화소를 상위어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는 전략 2. 바꿔쓰기 : ST의 일부 또는 전체 의미가 유지되고 TT로 전환
대체(substitution)	1. 문화 대체 : SC 또는 TC에 있는 다른 문화소로 대체하는 경우 2. 상황 대체 : 상황에 맞게 완전히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
생략(omission)	ST 문화소가 TT에서 완전히 생략되는 전략
공식 등가 (official equivalence)	일반적인 용법, 행정적인 결정을 통해 SC 문화소를 TL에 있는 기성 번역으로 번역하는 전략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는 Pederson(2011)의 유지, 구체화, 직접번역, 일반화, 대체, 생략, 공식 등가 등 6가지 사용하였고 문학 번역의 문화소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 세부 전략은 이석철(2021)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2.3.2. 문화적 거리로서의 번역

번역에 있어서 Nida(1964:163)가 처음으로 문화적 거리의 의미 담긴 ‘문화 간극(cultural gap)’을 언급하고 문화와 문화 간에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Nida가 ‘문화 간극’을 메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동시에 제시하였다. Nida(1964:163)에 따르면 ‘심한 문화적 격차를 좁히려는 번역에 외국 환경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Nida 이후 번역학 학자들이 문화적 거리나 문화 간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체계적으로 문화적 거리가 무엇인지 <그림 1>과 같이 Riess & Vermeer(1984:58) 도식화로 설명하였다.

<그림 1>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번역 수행



<그림 1>에서 Riess & Vermeer(1984:58)에 의하면 ‘... 대상 청중의 배경 지식은 적어도 저자(텍스트 생산자)가 언급한 원천 텍스트 수신자의 배경 지식과 다르다’라고 지적하였고 ‘정보 체계 1’과 ‘정보 체계 2’가 다른 이유는 서로 정보 체계에 담긴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로 정보 체계가 상이(相異)했음에도 Nord(1997:17)에 의하면 ‘번역자는 서로 다른 문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며, ‘번역자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및 기대, 지식, 관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의 토대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각 상황 간의 간격을 메워준다’고 지적하였다. Nord의 견해를 통해 문화 간(間)의 정보 체계의 차이를 아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기대, 지식, 관점으로 나누었다.

문화소는 문화의 산물(產物)로 간주할 수 있어 원천 문화에서 담긴 문화소와 목표 문화에서 담긴 문화소의 문화적인 거리가 멀수록 번역사의 개입은 필연적이며 문화적인 격차가 클수록 번역사의 보상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Al-Hassan, 2013). 그렇지만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번역의 문화적 거리를 계량화로 분석한 것이 없다. 본 연구는 문화소 번역과 문화적 거리의 관계를 계량화 분석할 것이다.

2.3.3. 문화소 번역과 문화소 번역 거래비용

최초로 번역과 문화적 거래비용을 설명한 학자는 Pym(1995)이다. Pym은 번역의 전·중·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함을 언급하고 번역학에 경제 이론을 적용하였다.

국내 연구 이석철(2021)에서는 문화소 번역과 거래비용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석철(2021:53-71)에 의하면 문화소 번역 분석에 적용되는 거래비용은 정보수집비용, 정보전달비용, 정보처리비용, 정보이해비용 총 4가지 거래비용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석철(2021)의 연구에서 거래비용은 문화소 번역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거리는 번역자의 번역 전략 지향과 전략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 거리는 번역에 있어서의 거래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문화소 번역, 번역 거래비용, 문화적 거리 3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하여 이석철(2021)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비용을 분석하였다. 문화소 번역 분석에 문화소의 문화횡단성과 문화적 거리 등 기준을 추가로 적용해서 앞서 언급한 4가지의 거래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당 범주별로 거래비용이 발생한 양상을 도출하였다.

3. 분석 기준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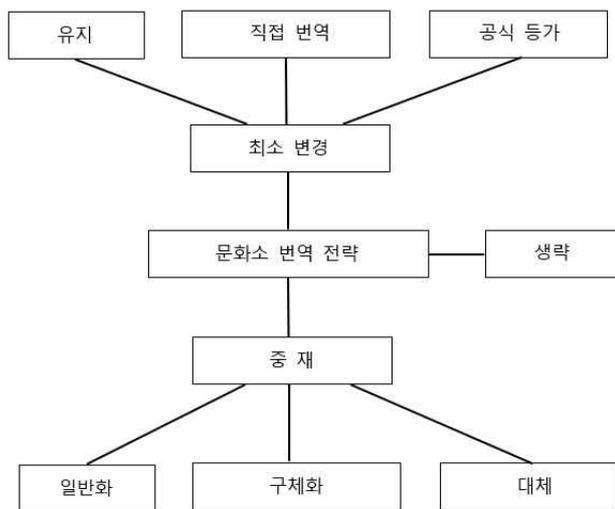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 내용은 문화적 거리 분석의 가능한 계량화 분석 기준이다. 문학 번역에 있어서의 본 연구에 적용된 문화적 거리 분석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매개변수로 나눈다. 이 3가지 매개변수는 Pedersen(2020:169)의 문화소 번역 전략 체계, Pedersen(2020:174)의 문화횡단성 가설, 그리고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다.

3.1. 분석 기준

3.1.1. 문화적 거리 분석 기준 1

Pedersen(2020:169)에서 제시된 문화소 번역 전략의 단순화된 과정 지향적 분류 체계는 본 연구의 문화적 거리 분석의 첫 번째 매개변수이다. 그의 번역 전략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단순화된 과정 지향적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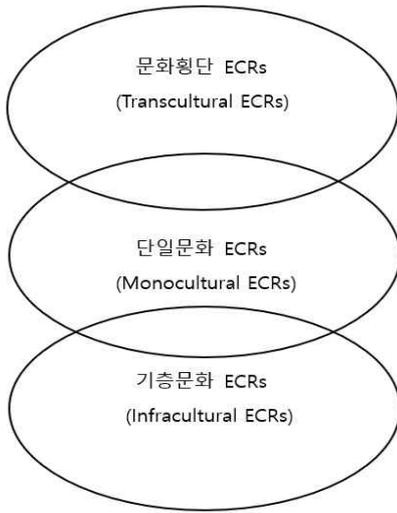
Pedersen의 문화소 번역 전략 체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화소 번역 전략에서 ‘최소 변경’과 ‘중재’ 두 전략 묶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편, 상위 분야인 최소 변경은 유지, 직접번역, 공식 등가 3가지의 하위 분야가 있고, 다른 상위 분야인 중재는 일반화, 구체화, 대체 3가지의 하위 분야가 있다. Pedersen의 분류 체계의 장점을 말하면 ST와 TT의 문화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최소 변경’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ST와 TT의 문화적 거리

가 멀 때에는 ‘중재’ 번역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3.1.2. 문화적 거리 분석 기준 2

Pedersen(2020:174)에서 제시된 문화횡단성은 문화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SL과 TL은 서로 다른 언어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즉, 정보 체계도 다르며, 서로 공유한 문화소인 경우도 있고 단순히 SL에서만 가진 문화소인 경우도 있다. 그 지표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문화횡단성 층위



1) 문화횡단 문화소 - ST와 TT 청중의 지식에서 익숙한 ECR이다.

2) 단일문화 문화소 - ST 청중만 알고 있는 ECR이다.

3) 미시문화적 문화소 - 일반적으로 SC에 속하지만, ST 청중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소이며, 소수 ST 또는 TT 청중만이 이에 익숙하다.

Pedersen(2020:174)에 의하면 ‘문화횡단성은 문화적 거리(Leppihalme 1997:4 참조)라는 개념, 즉 두 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와 관련 있다’고 한다. Pedersen(2011:107)의 분류에 기초하여 문화소의 문화횡단성(Transculturality)의 정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3.1.3. 문화적 거리 분석 기준 3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은 원문과 번역의 문화적 거리 분석의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있거나 원문 주변에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있는 경우 원문과 번역의 문화적 거리가 축소되었다. ST 독자이든 TT 독자이든 그 문화소에 관련 정보를 읽으면서 해당 문화소에 대해 친숙해진다. 이렇듯 문화적 거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번역자가 최소 변경에 속한 번역 전략을 사용할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없거나 원문 주변에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원문과 번역의 문화적 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가 중재에 속한 번역 전략을 사용할 경향이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의 문화적 거리 영향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의 문화적 거리 영향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있는 경우	최소 변경 번역 전략
원문 내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중재 번역 전략

3.2.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문화소 분류에 따라 Zadie Smith의 『On Beauty』에서 관련된 문화소를 수집하고 총 1148개의 문화소를 통계하였다. 해당 1148개의 문화소의 통계에 의해서 각 문화소 분류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3> 문화소 유형별 통계 상황

문화소 분류	개수	비율
생태문화소	98	8.53%
물질문화소	56	4.86%
제도문화소	198	17.24%
관습문화소	164	14.28%
관념문화소	114	9.98%
언어문화소	518	45.11%
합계	1148	100.00%

한역본 문화소 번역 전략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한역본 문화소 번역 전략 유형별 통계 상황

번역 전략 유형	개수	비율
유지	2	0.174%
구체화	261	22.735%
직접번역	174	15.157%
일반화	89	7.753%
대체	125	10.889%
생략	16	1.394%
공식 등가	18	1.568%
이중 번역 전략	463	40.331%
합계	1148	100.000%

중역본 문화소 번역 전략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중역본 문화소 번역 전략 유형별 통계 상황

번역 전략 유형	개수	비율
유지	1	0.087%
구체화	219	19.077%
직접번역	105	9.146%
일반화	207	18.031%
대체	194	16.899%
생략	9	0.784%
공식 등가	21	1.829%
이중 번역 전략	392	34.146%
합계	1148	100.000%

4. 문화소 번역전략 문화적 거리 분석

본 장에서는 문화소 번역전략 문화적 거리 분석 부분에서는 연구대상의 생태문화소, 물질문화소, 제도문화소, 관습문화소, 관념문화소 및 언어문화소의 문화적 거리 분석을 제시한다.

4.1. 생태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도시, 시골, 마을

도시, 시골, 마을은 생태문화소의 중요한 부분을 간주할 수 있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도시, 시골, 마을 명칭에서는 주로 영국,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명칭이다.

<사례 1>

ST: ‘Bloody hell. Could you excuse us? Like Piccadilly Circus in here.

Jerome! Zora?’ (『On Beauty』, p.102)

영·한 번역 전략 : 음차번역+추가

TT(KOR): ‘이런 젠장! 또 한 번 실례해야겠군. 오늘 이 자리는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롬! 조라! 어디 있어?’ (『온 뷰티 1』, p.285)

영·중 번역 전략 : 음차번역+모사+추가

TT(CHI): “该死。请原谅我们。这里面就像是伦敦的皮卡迪利广场。杰尔姆！佐拉？” (『关于美』, p.97)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음차번역+추가	단일문화	X	[+D]
영·중	음차번역+모사+추가	단일문화	X	[+D]

<사례 1>에서 제시된 문화소 ‘Piccadilly Circus’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번화가 사거리이다. 영·한 TT에서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로 번역된 결과를 보면 영·한 번역자가 원문 문화소인 ‘Piccadilly Circus’를 음차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피카딜리 서커스’로 번역하였고, 한국어 독자에게 문맥 이해 도움을 주기 위해 번역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라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영·한 번역 전략을 분석하면 TT에서 ‘음차번역+추가’인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다. ‘Piccadilly Circus’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대부분 한국어 SL 독자가 잘 알려지지 않는 단일문화에 속하며 영·한 번역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더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평가해서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였다.

영·중 ‘伦敦的皮卡迪利广场’라는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Piccadilly Circus’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하며 영·중 번역자가 ‘음차번역+모사+추가’인 이중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번역 전략 선택을 살펴보면 한역본과 마찬가지로 영·중 번역자의 판단에 의하면 ‘Piccadilly Circus’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2. 물질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주거 및 건축

주거 및 건축은 물질문화소의 한 부분으로 연구대상에서 나온 주거 및 건축 명칭은 주로 영국 및 미국에 있는 주거 및 건축 명칭이다.

<사례 2>

ST: ... I was being evicted from the ‘bedsit’ place in Marylebone. (『On Beauty』, p.3)

영·한 번역 전략 : 문화대체

TT(KOR): 저는 매리번에 있는 원룸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지요. (『은 뷰티 1』, p.13)

영·중 번역 전략 : 상황대체

TT(CHI): … 当我被人从玛丽莱伯恩露那“卧室兼客厅”的住所驱逐出来的时候. (『关于美』, p.3)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문화대체	단일문화	X	[+D]
영·중	상황대체	단일문화	X	[+D]

<사례 2>에서 제시된 문화소 ‘bedsit’는 한 방 안에 침대, 테이블, 의자 및 요리 공간이 있는 임대주택 형식이다. 영·한 TT에서 ‘원룸’으로 번역된 결과를 보면 영·한 번역자가 중재에 속한 대체 번역 전략(문화대체)을 선택하였다. ‘bedsit’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 층위에 속하며 영·한 번역자가 이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였다.

영·중 ‘卧室兼客厅’라는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역본 번역자가 중재에 속한 대체 번역 전략(상황대체)을 사용하였다. ST에 없는 ‘卧室(침실)’, ‘兼(겸)’, ‘客厅(거실)’의 어휘로 ‘卧室兼客厅(침실 겸 거실)’의 완전히 다른 어휘나 표현으로 ‘bedsit’를 대체하였다. 중국어권 독자가 이 문화소 번역을 읽으면 ST 문화소에 담긴 거주 형태를 바로 알 수 있다. 이 번역 전략 선택을

살펴보면 영·중 번역자가 ‘bedsit’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추이된다. 그렇지만, ‘卧室兼客厅’보다 중국독자들이 좀 더 익숙한 ‘单身公寓’로 번역할 수도 있다.

가구

가구는 물질문화소의 한 부분으로 연구대상에서 나온 가구 명칭은 주로 영·미의 가구 명칭이다. 가구에 관한 사례의 영·한 및 영·중의 번역 양상을 보면 서로 매우 다른 번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사례 3>

ST: Here a bookshelf filled with their oldest paperbacks kept company with a **suede beanbag and ottoman**... (『On Beauty』, p.8)

TT(KOR): 그 공간은 오래된 페이퍼백 서적으로 채워진 책장 하나와 **스웨이드 재질의 빈백 체어, 오토만**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온 뷰티 1』, p.25-26)

‘스웨이드 재질의 빈백 체어’에 관한 역주 : 커다란 자루 같은 천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채워 편하게 사용하는 의자.

‘오토만’에 관한 역주 :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긴 의자.

TT(CHI): 客厅里, 有一个书架, 上面放满最旧的平装书, 与它为伴的是一个**麂皮豆袋椅**, ... **长软椅**... (『关于美』, p.8)

<사례 3>에서 제시된 문화소 ‘suede beanbag’과 ‘ottoman’은 서양식 가구이다. 원문 ST에 있는 문화소는 영·한 번역에서든지 영·중 번역에서든지 이 두 문화소에 각각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다.

문화소 ‘suede beanbag’에 대한 분석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음차번역+추가+파라텍스트	단일문화	X	[+D]
영·중	모사	단일문화	X	[-D]

우선, 문화소 ‘suede beanbag’부터 살펴보자. 문화소 ‘suede beanbag’는 마른 콩 또는 이와 유사한 충전제로 채워진 큰 가방 모양으로 구성된 부드러운 의자이다. 영·한 번역가가 직접번역에 속한 음차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suede beanbag’이라는 문화소를 ‘스웨이드... 빈

백'으로 번역하였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파라텍스트(역주) 전략도 같이 사용하였다. 더불어 번역가가 ST에서 밝히지 않는 추가 정보인 '... 재질의'와 '체어(chair)'를 번역 결과에 넣었다. 이 세 가지 번역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분석하면 번역자가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보일 수 있다. 'suede beanbag'이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한국어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소이기 때문에 단일문화 층위에 속한다. 영·한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麂皮豆袋椅'라는 번역에서 보듯이 영·중 번역자가 문화소 'suede beanbag'을 번역할 때 직접번역에 속한 모사 전략을 사용하였다. 문화소 'suede beanbag'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 층위에 속해도 영·중 번역자가 최소 변경에 속한 모사 전략을 선택하였다. 번역자의 번역 전략 선택과 문화횡단성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suede beanbag'이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에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본다.

문화소 'ottoman'에 대한 분석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음차번역+파라텍스트	단일문화	X	[+D]
영·중	상위어	단일문화	X	[+D]

ST에 있는 두 번째 문화소 'ottoman'을 볼 것이다. 문화소 'ottoman'은 영·한 번역에서 제시된 역주와 같이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긴 의자이다. 영·한 번역가가 직접번역에 속한 음차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ottoman'이라는 문화소를 '오토만'으로 번역하였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파라텍스트(역주) 전략도 같이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번역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분석하면 번역자가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ottoman'이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한국어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소이며 단일문화 층위에 속한다. 따라서 영·한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长软椅(길고 부드러운 의자)'라는 번역에서 보듯이 영·중 번역자가 문화소 'ottoman'을 번역할 때 일반화에 속한 상위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长软椅'는 상위어로 보는 이유는 'ottoman'이 일종의 길고 부드러운 의자이다. 문화소 'ottoman'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 층위에 속하고 영·중 번역자가 중재에 속한 상위어 전략을 선택하였다. 번역자의 번역 전략 선택과 문화횡단성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ottoman'이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에 있다는 판단이 보인다.

4.3. 제도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역사

역사와 관련한 문화소는 제도문화소의 한 부분이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역사와 관련한 문화소가 많아 해당 문화소는 주로 영·미국에 속한 제도나 역사 문화소이다.

<사례 4>

ST: ... all the Jews in the first tower had been warned beforehand or that you can't trust Mexicans not to steal the rug from under your feet or that more roads were built under Stalin... (『On Beauty』, p.96)

영·한 번역 전략 : 축자번역+추가

TT(KOR): ... 9.11 때 첫 테러 대상이었던 북쪽 타워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미리 경고를 들었다는 등, 멕시코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등, 경제는 스탈린 치하에서 엄청난 발전했다는 등... (『온 뷰티 1』, p.266-267)

영·중 번역 전략 : 축자번역

TT(CHI): ... 所有在第一座集中营里的犹太人事先都得到过警告, 或者, 你不能相信墨西哥人不会从你脚下偷走地毯, 或者, 斯大林统治时期修建了更多的路…… (『关于美』, p.91)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축자번역+추가	단일문화	X	[+D]
영·중	축자번역	단일문화	X	[-D]

<사례 4>에서 제시된 문화소 ‘all the Jews in the first tower had been warned beforehand or that you can't trust Mexicans not to steal the rug from under your feet or that more roads were built under Stalin’은 미국과 소련에서 발생한 역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영·한 TT에서 ‘9.11 때 첫 테러 대상이었던 북쪽 타워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미리 경고를 들었다는 등, 멕시코 사람들은 뒤통수를 잘 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등, 경제는 스탈린 치하에서 엄청난 발전했다는 등’으로 번역된 결과를 분석하면 ‘축자번역+추가’인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문화소에 추가된 정보는 ‘9.11 때 첫 테러 대상이었던 북쪽 타워에 있던’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사례 4>에서 제시된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하며 영·한 번역자가 영·한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해서 ‘축자번역+추가’인 이중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所有在第一座集中营里的犹太人事先都得到过警告, 或者, 你不能相信墨西哥人不会从你脚下偷走地毯, 或者, 斯大林统治时期修建了更多的路’라는 번역 결과에서 보듯이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해도 영·중 번역자가 직접번역에 속한 독자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영·중 번역문에 추가 정보 없이 단순히 독자번역 전략을 사용한 양상과 문화횡단성을 살펴보면 영·중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에 있다는 판단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영·중 번역 결과를 살펴보면 ‘第一座集中营(첫 번째 수용소)’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술

예술과 관련한 문화소는 문학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문화소로 간주된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예술과 관련한 문화소가 많아 해당 문화소는 주로 영·미국에 속한 예술 문화소이다.

<사례 5>

ST: ‘Well . . . it’s more like **Spoken Word**, as it happens.’ (『On Beauty』, p.75)

영·한 번역 전략 : 음차번역+파라텍스트

TT(KOR): “음... 랩이라기보다 **스포큰 워드**라고 해야 겠지.” (『온 뷰티 1』, p.208)

역주: 시를 리듬감 있게 읊으며 음악과 함께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공연 장르의 하나.

영·중 번역 전략 : 문화대체

TT(CHI): “嗯…… 这更像是**吟说**，事实就是如此。” (『关于美』, p.71)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음차번역+파라텍스트	단일문화	X	[+D]
영·중	문화대체	단일문화	X	[+D]

<사례 5>에서 제시된 문화소 ‘Spoken Word’는 영·한 번역 역주에서 제시했듯이 ‘시를 리듬감 있게 읊으며 음악과 함께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연 장르의 하나’이다. 영·한 TT에서 음차번역 전략으로 ‘스포큰 워드’를 번역하는 것과 파라텍스트 전략으로 번역자가 추가한 역주를 분석하면 영·한 번역자가 ‘음차번역+파라텍스트’인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Spoken Word’라는 문화소는 한국어권 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문화소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 층위에 속한다. 따라서 영·한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여 ‘음차번역+파라텍스트’인 이중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영·중 ‘吟说’라는 번역 결과에서 보듯이 ‘Spoken Word’라는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하며 영·중 번역자가 중재이자 대체에 속한 문화대체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해당 번역 전략의 사용과 문화횡단성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

가 먼 정도에 있다는 판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어권 독자가 이해하는 ‘吟说’의 의미와 ST 문화소인 ‘Spoken Word’의 의미가 얼마나 가까운지 판가름하기 매우 힘들다.

4.4. 관습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명절

명절과 관련한 문화소는 문학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관습문화소를 간주한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명절과 관련한 문화소는 주로 서양 나라의 명절 문화소이다.

<사례 6>

ST: ... She called me up and said it's the birthday of St John the Baptist, let's do it, and we did it. (『On Beauty』, p.56)

영·한 번역 전략 : 모사+파라텍스트

TT(KOR):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오늘이 세레 요한 탄생 축일이니 결혼이나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온 뷰티 1』, p.153-154)

역주 :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살로메는 관능적인 춤으로 계부인 헤롯 왕을 유혹한 뒤 세레 요한의 잘린 머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 그를 죽게 만든다.

영·중 번역 전략 : 모사

TT(CHI): 她打电话给我, 说那天是圣约翰的生日, 我们结婚吧, 于是我们就结婚了。(『关于美』, p.53)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모사+파라텍스트	단일문화	O	[+D]
영·중	모사	단일문화	O	[-D]

<사례 6>에서 제시된 문화소 ‘the birthday of St John the Baptist’는 영·한 번역의 역주에서 제시하였듯이 ‘신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살로메는 관능적인 춤으로 계부인 헤롯 왕을 유혹한 뒤 세레 요한의 잘린 머리를 갖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 그를 죽게 만든다’라는 뜻이다. 영·한 TT에서 ‘세레 요한 탄생 축일’로 번역된 결과와 추가된 역주를 보면 영·한 번역자가 ‘모사+파라텍스트’인 이중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The birthday of St John the Baptist’라는 문화소는 천주교나 기독교 신도가 아닌 한국어권 독자에게 다소 생소한 문화소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한다. <사례 6> 원문 바로 앞뒤 부분에서 주인공 클레어가 세레 요한과 관련된 살로메

(Salome)라는 인물 문화소가 언급되기 때문에 원문 내 문화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영·한 번역자가 관련 문화소 설명이 있음에도 영·한 번역자에 의해 ‘the birthday of St John the Baptist’라는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해서 ‘모사+파라텍스트’인 이중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圣约翰的生日’라는 번역 결과에서 보듯이 <사례 6>에서 제시된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해도 해당 문화소와 관련 설명이 있으므로 영·중 번역자가 직접번역에 속한 모사 번역 전략을 택하였다. 모사 번역 전략의 사용, 문화횡단성, 더불어 원문 내 문화소 설명의 조건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the birthday of St John the Baptist’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에 있다는 판단을 알 수 있다.

4.5. 관념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문화소는 한 관념문화소를 간주할 수 있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문화소는 주로 서양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의 관념을 비롯한 특정 사회적 방식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신념을 의미한다.

<사례 7>

ST: Everywhere we go, I'm alone in this... this sea of white. I barely know any black folk anymore, Howie. My whole life is white. I don't see any black folk... (『On Beauty』, p.206)

영·한 번역 전략 : 바뀔쓰기

TT(KOR): 나는 어디를 가든 외톨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백인의 바다죠. 아는 흑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고..... 내 인생이 하얗게 물들어 버렸어요. (『온 뷰티 1』, p. 544)

영·중 번역 전략 : 축자번역

TT(CHI): 我们每到一个地方, 我就孤立地待在这个……这个白人的海洋里。我几乎不再认识任何黑人。 霍伊, 我的整个生活都是白色的。 我看不到任何黑人。 (『关于美』, p.197)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바뀔쓰기	단일문화	X	[+D]
영·중	축자번역	단일문화	X	[-D]

<사례 7>에서 제시된 문화소 ‘my whole life is white’는 원문 소설 주인공인 키키의 개인

적인 심경 서술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례에 있는 ‘white’는 단순히 색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백인의 사회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영·한 TT에서 ‘내 인생이 하얗게 물들어 버렸어요’로 번역된 결과를 분석하면 영·한 번역자가 일반화에 속한 바뀔쓰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My whole life is white’라는 문화소는 한국어권 독자에게 ‘백인의 사회’를 비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한다. 영·한 번역자에 의해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해서 중재에 속한 바뀔쓰기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我的整个生活都是白色的’이라는 직접번역에 속한 축자번역 결과를 보면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해도 영·중 번역자도 최소 변경에 속한 축자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의 사용과 문화횡단성의 층위를 보면 영·중 번역자가 ‘my whole life is white’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에 있다는 판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我的整个生活都是白色的(한국어 역번역 : 나의 모든 생활은 하얀색이다)’이라는 번역에서 생활은 왜 하얗게 되어 있는지, 원문의 ‘하얀색(white)’의 비유적 의미가 뭘지 영·중 번역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사고방식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화소는 한 개념문화소의 부분으로 연구대상에서 나온 사고방식과 관련한 문화소는 주로 서양권인 사고방식과 관련된다.

<사례 8>

ST: **False opposition.** (『On Beauty』, p.46)

영·한 번역 전략 : 상황대체

TT(KOR):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온 뷰티 1』, p.127)

영·중 번역 전략 : 모사

TT(CHI): **虚假的反对.** (『关于美』, p.44)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상황대체	단일문화	X	[+D]
영·중	모사	단일문화	X	[-D]

<사례 8>에서 제시된 문화소 ‘false opposition’의 의미는 ‘사용 가능한 선택을 잘못 제한하는 전제에 기반한 오류’이고 원문 소설 주인공인 제롬이 제시한 의견이다. 영·한 TT에서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로 번역된 결과를 보면 영·한 번역자가 대체에 속한 상황대체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False opposition’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학술적이고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 특유한 표현이다. 보다 한국어권 독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문화소일 수 있어서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한다. 영·한 번역자가 ST에 있는 문화소를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로 번역하며 한국어권 독자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영·한 번역자에 의해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해서 중재에 속한 상황대체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虛假의反对(false objection)’이라는 직접번역에 속한 모사 번역 결과를 분석하면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단일문화에 속해도 영·중 번역자도 최소 변경에 속한 모사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의 사용과 문화횡단성의 층위를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false opposition’이라는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에 있다는 판단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虛假의反对’인 영·중 번역은 정보 전달 차원에서 과연 중국어권 독자에게 ST 문화소의 의미가 반영되는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4.6. 언어문화소 문화적 거리 분석

비유

비유는 영어에서 중요한 수사 방식이라고 간주하여 문학 번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언어문화소로 간주한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비유는 아래에 제시된 다양한 예시와 같다.

<사례 9>

ST: To enact with one sudden tug (like a boy removing his friend's shorts in front of the opposing team) a complete exposure... (『On Beauty』, p.29)

영·한 번역 전략 : 축자번역

TT(KOR): 갑자기 핵 잡아당겨서(상대 팀이 보는 앞에서 친구의 운동복 바지를 벗겨 버리는 소년처럼) 완전히 까발리는 것, (『온 뷰티 1』, p.81)

영·중 번역 전략 : 축자번역

TT(CHI): 突然间猛力一拉 (就像一个男孩在对手的队伍面前扯下他朋友的短裤一样) , 然对方暴露无遗... (『关于美』, p.28)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축자번역	문화횡단	X	[-D]
영·중	축자번역	문화횡단	X	[-D]

<사례 9>에서 제시된 문화소는 ‘like a boy removing his friend’s shorts in front of the opposing team’이라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소설 주인공인 하워드는 같은 렘브란트 주제를 연구한 모티에게 심하게 비판을 받고 마치 뒤통수를 맞은 느낌처럼 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문화소의 관점으로 본 비유는 물론 비유의 형식(직유, 제유, 환유, 은유 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지만 비유의 대상은 독자에게 친숙하거나 익숙한지 즉, 비유 대상의 문화횡단성은 어느 층위에 속하는 건지, 또한 SL과 TL은 어떤 맥락문화(context culture)에 속하는 건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논의할 만한 과제로 삼는다.

<사례 9> 영·한 TT에서 번역된 결과를 보면 번역자가 직접번역에 속한 축자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비유 대상인 상대 팀이 보는 앞에서 친구의 운동복 바지를 벗겨 버리는 소년은 한국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나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해당 비유 대상, 즉 이 사례의 문화소는 문화횡단 층위에 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한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여 최소 변경에 속한 축자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중 번역에서도 번역자가 직접번역에 속한 축자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ST 문화소를 ‘一个男孩在对手的队伍面前扯下他朋友的短裤一样’으로 번역하였다.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은 횡단문화에 속하며 영·중 번역자도 최소 변경에 속한 축자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번역 전략의 선택과 문화횡단성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사례 9>에서 제시된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9>의 영·한과 영·중 번역처럼 문화소의 관점으로 볼 때 번역자는 해당 비유가 문화횡단 층위에 속하다고 판단하면 ST와 TT에 속한 비유의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번역을 수행할 때 번역자가 최소 변경에 속한 번역 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언어 맥락문화를 고려하면 번역자의 문화적 거리에 대한 판단, 번역 전략의 사용 내지 번역의 결과물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맥락문화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축자번역	문화횡단	X	한국어 : 고맥락문화	[+D]
영·중	축자번역	문화횡단	X	중국어 : 고맥락문화	[+D]

한국어와 중국어는 영어와 비교하면 보다 고맥락문화에 가깝다.⁵⁾ Hall(1976:91)에 의하면

5) 김재희(2018),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방법 연구: 단편소설의 한·영, 한·아 번역을 중심

‘고맥락(문화)의 의사소통이나 메시지는 대부분 정보가 물리적 맥락에 있거나 사람에게 내면화 되어 있는데 메시지에서 코드화되고 명시적이며 전송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⁶⁾ 그 결론은 번역의 관점에서 저맥락문화의 특징을 가진 언어와 고맥락문화를 가진 언어는 서로 메시지를 전달 방법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번역자가 비유를 번역할 때 문화소로 본 비유 대상의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번역자의 번역 전략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소 변경에 속한 번역 전략이 아닌 중재에 속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중재 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가능한 번역 결과는 아래와 같다.

중재 번역 전략이 적용한 번역		
원문	Like a boy removing his friend's shorts in front of the opposing team	
영·한	문화대체	마치 원수의 눈앞에 동료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
영·중	상황대체	就像一个背信弃义的家伙让他的伙伴在对手面前丢尽脸面。

관용 표현

현대 영·미 문학에서 관용 표현의 한 수사 방법으로 영·미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 부문 이라고 간주된다. 연구대상에서 나온 관용 표현은 아래에 제시된 예시와 같다.

<사례 10>

ST: ‘Please, take the rest too. Don't dangle carrots.’ (『On Beauty』, p.66)

영·한 번역 전략 : 상황대체

TT(KOR): ‘제발 진정하게! 공연히 남의 애 꼬드기지 말라고.’ (『은 뷰티 1』, p.184)

영·중 번역 전략 : 축자번역

TT(CHI): “拜托，把其他的也带去吧。 别拿着胡萝卜引诱人。” (『关于美』, p.63)

번역본	번역자에 의한 번역 전략 및 문화적 거리 비교			
	번역 전략	문화횡단성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영·한	상황대체	단일문화	X	[+D]
영·중	축자번역	단일문화	X	[-D]

<사례 10>에서 제시된 문화소 ‘Don't dangle carrots’를 직역하면 ‘당근을 가지고 남을 유

으로」를 참조.

6) 영문 원문 참조 : A high-context (HC) communication or message is one in which most of the information is either in the physical context or internalized in the person, while very little in the coded, explicit, transmitted part of the message.

혹하지는 마'라는 뜻 즉, 남의 마음을 꼬드기지는 마'의 의미이고 영어의 관용구이다. 영·한 TT에서 '공연히 남의 애 꼬드기지 말라고'로 번역된 결과를 보면 번역자가 대체에 속한 상황 대체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번역을 분석하면 번역자가 원문 대화의 맥락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ST를 대체하였다. 해당 문화소의 문화횡단성을 보면 영어의 관용구이기 때문에 단일문화 층위에 속하는 것이며 영·한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한 문화적 거리가 먼 정도로 판단하여 중재에 속한 상황대체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중 번역에서 번역자가 직접번역에 속한 독자번역 전략을 사용해서 ST를 '別拿着胡萝卜引诱人(당근을 가지고 남을 유혹하지는 마)'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 영·중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영·중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정도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소 변경에 속한 독자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렇지만 당근이 사람에게 유혹까지 갈 수 있을지, 번역자가 독자번역으로 이 번역문을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胡萝卜(당근)'을 '好处(이익)'으로 번역하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든다.

5. 문화적 거리와 문화소 번역 거래비용 분석

5.1. 문화적 거리에 의한 문화소 번역 거래비용 발생의 가능성

앞서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적 거리는 번역자의 번역 전략 지향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번역자의 번역 전략뿐만 아니라 문화적 거리는 번역학이나 번역 실무 영역의 다양한 면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석철(2021)의 연구에서 거래비용이 문화소 번역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석철(2021:53-71)에 의하면 문화소 번역 분석에 적용된 거래비용은 정보수집비용, 정보전달비용, 정보처리비용, 정보이해비용 총 4가지 거래비용 범주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석철(2021)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래비용의 관점으로 본 문화소 번역 분석에 문화소의 문화횡단성과 문화적 거리 판단을 추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번역자나 독자가 SL에 속하는 경우와 TL에 속하는 경우, 문화소 번역이나 이해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4가지의 거래비용 범주로 해당 범주별의 거래비용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5.2. 정보수집비용 발생 가능성

이석철(2021:60)에 의하면 정보수집비용은 '(ST) 내용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다. 문화소의 문화횡단성과 번역자의 문화적 거리 판단을 추가로 문화소 번역 분석에 적용한 정보수집비용 발생의 가능성은 아래 정리된 표와 같다.

문화횡단성 층위에 속한 단일문화인 경우, SL 모국어 번역자와 TL 모국어 번역자의 정보수집비용이 다를 수 있다.

<표 6> 정보수집비용에서 단일문화 층위의 SL 번역자인 경우

문화횡단성 층위	번역 전략 지향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이유	정보수집비용 발생 가능성
단일문화	최소 변경	X	[-D]	TT 문화소 정보 수집	보통
		O	[-D]	TT 문화소 및 원문 내 문화소 설명 정보 수집	높음
	중재	X	[+D]	TT 문화소 (추가)정보 수집, 중재 전략 사용 정보 수집	높음
		O	[+D]		
	이중 전략	X	[+D]	TT 문화소 (추가)정보 수집, 이중 전략 사용 정보 수집	매우 높음
		O	[+D]		

위에 <표 6>은 문화횡단성 층위에 속한 단일문화인 경우 SL 모국어 번역자의 정보수집비용 분석이다. TL 모국어 번역자보다 SL 모국어 번역자가 ST와 ST의 문화소에 익숙하므로 이럴 때 번역자가 최소 변경 전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면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문화적 거리를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소의 TT 문화소 정보 수집 또는 원문 내 문화소 설명 정보 수집 등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수집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통과 높은 정도이다. 반면에 번역자가 중재 또는 이중 전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면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문화적 거리를 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TT 문화소에 관한 정보 수집, 중재나 이중 번역 전략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수집비용이 높은 편이다.

<표 7> 정보수집비용에서 단일문화의 TL 번역자인 경우

문화횡단성 층위	번역 전략 지향	원문 내 문화소 설명	문화적 거리 판단	이유	정보수집비용 발생 가능성
단일문화	최소 변경	X	[-D]	ST 문화소 정보 수집	보통
		O	[-D]	ST 문화소 및 원문 내 문화소 설명 정보 수집	높음
	중재	X	[+D]	ST 문화소 (추가)정보 수집, 중재 전략 사용 정보 수집	높음
		O	[+D]		
	이중 전략	X	[+D]	ST 문화소 (추가)정보 수집, 이중 전략 사용	매우 높음
		O	[+D]		

				정보 수집	
--	--	--	--	-------	--

위에 <표 7>은 문화횡단성 층위에 속한 단일문화인 경우 TL 모국어 번역자의 정보수집비용 분석이다. SL 모국어 번역자보다 TL 모국어 번역자가 TT와 TT의 문화소에 더 익숙하다. 이럴 때 번역자가 최소 변경 전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면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문화적 거리를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문화소의 ST 문화소 정보 수집 또는 원문 내 문화소 설명 정보 수집 등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수집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통과 높은 정도이다. 반면, 번역자가 중재 또는 이중 전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면 번역자가 해당 문화소의 문화적 거리를 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ST 문화소에 관한 정보 수집, 중재나 이중 번역 전략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수집비용이 높은 편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영·한 및 영·중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을 문화적 거리 이론으로 분석하여 영국 소설가 제이디 스미스(Zadie Smith)의 『On Beauty』에 나타난 문화적 거리 이론을 고려하되 문학 번역 전략의 탐구, 다양한 번역 양상의 분석, 또한 문화적 거리의 이론적인 적용 시도를 논의하였다. 더불어 문화 번역의 문화소 거래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 거리의 이론적 접근, 문화소 번역에 문화적 거리를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한 및 영·중 문화소 번역 분석을 통해 3가지 언어 간의 번역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번역 연구의 유의미한 과제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둘째, 영어, 한국어, 중국어라는 서로 다른 언어의 특징에 기반하여 문학작품 번역에서 영·한 및 영·중 번역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번역 전략과 번역 양상이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거리의 요인을 번역학, 특히 기술번역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 그 발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적 거리와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SL이나 TL 번역가 실제 번역 작업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 나아가 SL과 TL 번역가 공동작업 방식의 장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문화적 거리가 번역의 한 기준으로서 기존 번역학 연구의 다양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향후의 번역학 연구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한 및 영·중 문화소의 번역 전략 및 그 전략의 다양성 등을 대조 및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번역 연구에 유의미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효중(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 노드, 크리스티안(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호정(2012), 『제대로 된 통역 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제이드 스미스(2017), 『온 뷰티 1』, 민음사.
- _____ (2017), 『온 뷰티 2』, 민음사.
- 이근희(2005),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 한국문화사.
- 이근희(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Aixela, J.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 Alvarez, & C. 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Frankfurt: Multilingual matters, 56-60.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Routledge.
- Gutt, E.A. (1991),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 Larson, M. L. (1984), 『Meaning-Based Translation: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eppihalme, R. (1997),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Multilingual matters.
- Newmark, Peter. (1981), 『Approches to Translation』, Pregamon Press.
- _____ (1988), 『A Text 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 Nida, Eugene A.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ng』, E. J. Brill, 159-169, 238.
- Nord, Christiane. (1997a),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St. Jerome Pub.
- Pauli Roinila 외(1983), 『Näkökohtia kääntämisen tutkimuksesta』, Joensuu: Joensuun korkeakoulu, Kielten osasto: Jakelu, Joensuun korkeakoulun kirjasto.
- Pedersen J. (2011), 『Subtitling Norms for Television - An exploration focussing on extralinguistic cultural references』,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 _____ (2020), 『텔레비전 자막제작 규범 - 언어외적 문화지시어를 중심으로』, 동인.
- Pym, Anthony. (2014),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 Reiss, K. (2000), 『Translation Criticism - Potentials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Routledge.

- Reiss, K. & Vermeer, H. J. (2013),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 - Skopos Theory Explained』, Routledge.
- Smith, Zadia. (2005), 『On beauty』, Penguin Press.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Routledge, p.17-24.
- Vinay, J. & Darbelnet, J. (1958), 『Stylistique Comparee du Francais et de l' anglais』, Didier.
- _____ (2003), 『불어와 영어의 비교문체론』, 고려대학교출판부.
- Vlahov, Sz. & Florin, Sz. (1980), 『Nyeperevogyimoje v perevogye』, Mezdunarodnije otnosenyija.
- Werner Köller. (1979),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und Meyer.

2. 학위논문

- 약신(2018), 「중한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방법에 대한 연구」, 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이다현(2003), 「문화요소적 어휘 대응번역」,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이석철(2021), 「중한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이현경(2014), 「아동문학의 유머와 문화소 영한번역 전략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원교교(2015), 「한국 신문에서의 중국 TV 프로그램명의 수용 양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저민(2021), 「웹드라마 <맹처식신(萌妻食神)>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전략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조재범(2015),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편기영(2017), 「문화가 다른 두 언어사이 고유명사 비등가 번역」,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李錦(2018), 「중국 관광안내서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고유명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3. 학술지

- 김경희(2006), 「한불 문학번역에서의 역주의 실태」, 『통역과 번역』 14.2, 35-61쪽.
- 김도훈(2006),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전략」, 『통역과 번역』 8.2, 3-29쪽.
- 강수정(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쪽.
- 김재희(2018),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방법」, 『글로벌문화연구』, 9.2, 27-48쪽.
- 김효중(2005), 「문학작품 번역에서 문화 적용의 문제」, 『어문학』, 87, 519-539쪽.
- 김혜림 외(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쪽.
- 서유경(2012), 「한국 여성어 번역과 문화 간극 - 김주영의 <천둥소리> 러시아어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2, 39-67쪽.
- 이근희(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쪽.
- _____(2012a), 「문화층위와 문화소 :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쪽.
- 이승재(2012b), 「번역등가와 언어학적 갭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6.1, 129-144쪽.
- 왕영균 외(2009), 「관광 사이트 번역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영국여행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8.-, 159-176쪽.
- Al-Hassan, A. (2013), 「The Importance of Culture in Translation: Should Culture be Translated?」,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 English Literature』, 2.2, 96-100.
- Gaosheng, Deng. (2019), 「Rendering ECR in Subtitles: A Case Study of the Traditional Chinese Martial Arts Films」, 『Asian Culture and History』, 11.1, 31-40.
- Nord, Christiane. (1997b), 「Defining translation functions. The Translation Brief as a Guideline for the Trainee Translation」, Ilha do Desterro, Special Issue: 『Translation Studies in Germany』, ed. by W. Lörscher, 2, 39-53.
- _____(2005), 「Making Otherness Asscessible - Functionality and Skops in the Translation of New Testament Text」,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 Meta: Translators' Journal』, vol. 50, 3, 868-880.
- Powell, J. (2008), 「Translation and culture in ancient Rome: Cicero's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Übersetzungstheorie und Übersetzungspraxis bei Cicero)」, In H. Kittel, A. Frank, N. Greiner, T. Hermans, W. Koller, J. Lambert & F. Paul (Ed.), 2. Teilband: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Übersetzungsforschung』, 1132-1137.

Pym, Anthony. (1995), 'Translation as a Transaction Cost',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 Translators' Journal』, vol.4, 594-605.

Tellingier, Dusan. (2003), 'A reáliák fordítása a fordító kulturális kompetenciája szemszögéből (The translation of real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lator's cultural competence)', 『Fordítástudomány』, 5(2), 58-70.